

# 국감 마지막 날 전작권연기·카톡감청 공방

## 정보위·운영위 등 '변외국감'은 내달 4일까지 계속

국회는 27일 국방위·외교통일위·법사위·보건복지위 등 총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끝으로 21일간의 공식적인 올해 국감 일정을 마쳤다. 의원들이 경계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운영위·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른바 '변외국감'을 이어가지만, 각 상임위는 28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마지막날 국감에서 2020년 대로 연기된 전작권전환문제(전작권) 전환 문제, 사이버 검열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사에 평가받을 일을 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책임자는 이번 기회에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재연기 합의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결정"이라고,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서 1905년 일본에 외교 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지금은 군사 주권을 우리 스스로 타국 군에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 탓으로 돌리고 "안보 실패를 이룰게라든바 바로잡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빅딜'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심재권·정세균 의원은 한미연합사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기존 기지 잔류로 LPP(연합포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국회 비준동의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가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논란)은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일반 감청도 문제지만 패킷감청은 인터넷, 검색어,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국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 고의 회피 의혹 등을 캐물었다. 김 총재는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도교통위는 이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뺑소니’ 증인선서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세월호법 쟁점 3개로 압축

## 내일 협상 재개 유족 특검후보 추천 등 조율... 나머지 법안 일괄타결 나설듯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을 3개로 압축하고 2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내 합의 타결이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면서 "다만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지와 조사위원장·사무처장 분배 방법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통해 특별법사 추천에 유족 참여,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의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사법 체계의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참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특위의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지만, 새정치연합은 전체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임명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전에 특위위원장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편향적이거나 경력이 부족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

한편,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난 29일 오후 남은 쟁점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고, 이날 말까지 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까지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 새정치, 진상조사단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만 국감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자원외교 문제와 방산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각각 구성했다.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이, ‘방산비리 조사단’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주간 진행된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직폐를 바로잡는 작업은 이제 시작됐다"면서 "국감에서 밝혀진 수십조원의 현재 난방비와 자원외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위원장은 "외교통일위·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위·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10명가량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분야별 5개 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카카오톡 사찰’ 이슈화... 무차별 표적수사 경고 군대 가혹행위·세월호 부실 수사 등 대안 제시

## 국감 인물 새정치 원내연 의원

올 국회 제2차법위 국정감사의 중점 이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와 감사, 군대 가혹행위 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톡 사찰’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사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연 의원의 활약은 눈부셨다는 평을 받았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분석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으며 나아가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임 의원은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 국감에서 카카오톡 사찰과 같은 감청은 범죄사실이 구체성이 떨어질 상태에서 무차별 표적 수사로 이어져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감청영장·압수수색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수사를 위한 각종 영장과 협조요청이 과도하게 발부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뒤 법원·검찰·경찰·미래부가 협조해 통신사실 확인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 대안도 제시했다.



안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윤일병 사건’ 등 군대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군사법원 국감에서 군대 내 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문제, 군 사망자 국가배상금 지급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의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우울증 등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포함해 장병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복무 부적합 병사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 유병언 검거 및 세월호 침몰 책임에 관한 수사는 인턴지검, 목포해경 등 구조 책임자에 관한 수사는 광주지검에서 따로 진행해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세월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중감감사결과 발표 나올 전에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라운지

## 오병윤 “대북전단 살포, 항공법·ICAO협정 위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27일 반복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초경량항공기인 ‘무인자유키구’의 불법 운항으로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약(ICAO)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무인자유키구에 대해 “항공법 시행규칙 14조 3항에서 규정한 ‘기체의 성질을 이용한 무인자유키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도부는 항공관제절차에서 관제대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무인자유키구’, 즉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동력 경(輕)항공기의 하나로서 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비행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2번의

부록 4번에 따르면 ‘무인자유키구의 운항은 사람 또는 재산에 위험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며, 비행물체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 경우 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5일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위에 열거한 모든 사항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므로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혜자 “신축 학교 2%만이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대상 1671개 학교 중 단 29%인 36개 학교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신축된 1671개교 중 학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포함한 곳은 36개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4개교, 경남 7개교, 전북 5개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년 2월 이후 신축된 학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내진설

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33개월 동안 소방방재청이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체 기준을 정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 놓치고 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영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경남대학교**

남	추천 회원	재혼
<b>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b> 27-45세 <b>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b> 28-47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 <b>은행원, 연구원</b> 29-49세 <b>대(중)소기업 직원</b> 27-48세 <b>사업가, 자영업</b>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 <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 <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 <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 <b>변호사, 회계사, 변리사</b>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 <b>간호사, 은행원</b> 26-47세 <b>학원(음악)원장, 감사</b> 27-42세 <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 <b>미스코리아, 미스전북</b> 27-36세	<b>의사, 변호사</b> 32-65세 <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 <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 <b>대기업 간부</b> 36-59세 <b>회사원, 자영업</b> 33-67세 <b>'무출산 여성' 희망</b> 31-58세 <b>VIP 희망 여성</b> 29-53세 <b>학원(음악)원장, 감사</b> 27-63세 <b>공무원, 교사</b> 32-58세 <b>간호사, 회사원</b> 29-48세 <b>자영업, 기사</b> 35-64세 <b>'무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근로자,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전문직을 위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고, 구도청, 밀리오레, 세티은행, 대인파출소, 대인시장, 대인광장, 유동  
 충장지점: 구도청, 충미, 우리은행, 연덕국강, 남상명동, 광주일고, 유동, 노분동